

“제대로 알아서 잘 전해야죠”

템플스테이 사업단, 해인사에서 외국인 가이드 교육



템플스테이를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조계종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외국인 가이드를 대상으로 정확한 불교문화와 사찰예절 교육을 하는 ‘템플스테이 가이드교육’을 실시했다.

“사찰양식이나 불교문화는 책이나 자료를 통해 배우면 너무 피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불교문화를 제대로 배워서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참석했어요.”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사무국 주최로 8월 30일~9월 1일 해인사에서 열린 외국인 가이드 교육 참석자 이경미(28)씨의 말이다. 불교문화사업단이 처음으로 실시한 ‘템플스테이 협력 여행사 가이드를 위한 템플스테이 가이드교육’에 보내는 일어권, 영어권 가이드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뜨거웠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불교문화와 템플스테이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가이드들의 욕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8월 30일~8월 31일 교육에는 일어권 통역가이드 61명, 8월 31일~9월 1일에 진행된 교육에는 영어권 통역가이드 26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일어권 가이드는 무려 100여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고, 영어권 가이드는 참가자의 30% 이상이 템플스테이 참가 경험이 있거나 템플스테이 가이드 경력이 있어, 첫 프로그램부터 불교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다.

오후 3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한 첫 날은 템플스테이 사무국장 주경 스님의 ‘템플스테이 통역가이드의 역할’ 강의, 저녁 공양, 예불이 이어졌고 미항사 금강스님의 다도 강의로 마무리됐다. 둘째 날에는 새벽예불, 참선, 숲길명상, 발우공양, 을

력, 사찰안내, 불교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관광가이드협회를 통해 참석한 통역 가이드들은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스님들의 수행이나 한국불교가 갖는 세세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교육으로 한국불교를 제대로 알고 또 외국인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이번 교육 참석자 전원에게 일어권 영어권 템플스테이 가이드 교육보조 자료집과 한국불교에 대한 안내 자료집, 또 템플스테이 사찰이 소개된 지도 등의 자료도 만들어 제공했다.

영어·일어 통역사 87명 참가 직접 체험 위주의 교육 진행

한편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하반기 외국인 유치를 보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고자 인바운드 여행사 및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들을 초청, 8월 26~27일 양일간 경북 안동 봉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날 봉정사 템플스테이에는 여행사 및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들이 참가해 템플스테이 사업의 해의 홍보와 마케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템플스테이 사무국장 주경 스님은 “이번 가이드 교육을 시작으로 템플스테이 사무국이 사찰과 여행사간의 조정자로서 템플스테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통역 가이드들의 불교교리 및 소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해인사·배지선 기자

헌 물건에 새 새명을 이웃에게 희망을!

대구 남구시니어클럽 소외계층돕기 바자회

대구 불교사회복지회 산하 남구시니어클럽이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단 ‘행복한 나눔가게’ 어르신들이 사업 1주년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섰다.

아동의류, 신발 잡화류를 취급하는 수입전문업체 ‘나지’가 기증한 700여점의 아동용품 지역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에게 재기증하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날’을 마련한 것이다. ‘나지’가 기증한 물건은 운동화, 여름샌들, 가방, 의류 등 모두 매장에



서 판매하던 새 물건이다.

8월 30일~9월 1일 3일간 열린 행사에는 구세군 대구 혜천원, 유리아린이집, 천광보육원, 영생애육원 등 지역 아동복지기관 및 시설, 공부방 어린이 150여명이 다녀갔다.

‘행복한 나눔가게’는 앞으로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물품을 테마별로 기증받아 재기증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053)474-1144 배지선 기자

APEC 성공 위한 특별 기도회 부산 종교 지도자 250여명 참가

부산종교인평화회의(상임대표 정각)는 8월 24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불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의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부산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기도 및 결의대회에는 정각 스님과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 개신교 정영문 목사, 천도교 안관성 종법사, 원불교 박순경 교구장 등의 원로와 방영식 목사, 최신길 원불교 교무 등 부산의 종교인 25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다.

부산시의 APEC 준비상황 보고, 축시 등에 이어 부산 APEC을 맞아 부산의 종교인들이 역할과 다짐이라는 결의문을 통해 품격 높은 시민정신과 국제적 시민의식 발휘, 부산의 세계화, 봉사 및 참여활동 등에 종교인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천미희 기자

제12회 가족사진 콘테스트 최우수상에 이태현씨 수상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이 주최한 ‘제2회 가족사진 콘테스트’에서 이태현(76세, 청각장애3급)씨의 작품 ‘우리의 재물이(사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20여점의 작품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제5회 추석맞이 지역주민 화합 한마당 잔치인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열린 음악회’때 전시할 예정이다. (054)776-7522 배지선 기자

한다레·재즈·창 등 행사 다채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강선태)은 9월 2일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과 연계한 ‘재미결연 1주년 기념하며 문화공연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 행단체의 공연이 펼쳐졌고, 2부에서는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박수 채를 받았다.

1부 행사는 한다레, 종성에서 이어 심어회의 수화 통역으로 한희정 합창단의 공연과 한희정 사물놀이의 공연이 펼쳐졌고, 2부는 국악관현악 연주, 국악관현악과 함께 하는 재즈 창 등이 이어졌다. 천미희 기자

효행불교 대중화 ‘앞장’

대현그룹 손현수 회장 안동 홍효사 28일 개원



효행불교를 대중화하기 위한 포교당 홍효사가 8월 28일 안동시 흥현동에 문을 열었다.

대현불교 흥은선원 안동불교회관 홍효사(주지 법광)는 2004년 10월 (사)대현불교 흥은선원을 설립한 대현그룹 손현수 회장의 원력으로 세워졌다.

행사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은해사 주지 법타, 고운사 주지 혜승 스님, 김취동 안동시장, 대현그룹 손현수 회장과 임직원 및 불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월주 스님은 “지극한 효심은 모

든 도덕행의 근본으로, 부처님 가르침과 효심을 하나로 묶는 이 운동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흥은선원 이사회 의장이며, 홍효사 창건주인 대현그룹 손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효행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신라 42대 흥덕왕때의 국호 홍효공 손순의 효행실적을 근간으로 홍효사를 개원했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팔만대장경 동판 영구 보존 본격화”

해인사 ‘성공기원대회’ 개최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동판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이 본격화됐다.

‘민족문화 보존, 국민대화합을 위한 팔만대장경 동판간행 성공기원대회’가 8월 26일 가야산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렸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장 법광,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임직원 일동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는 주지 현응 스님과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 인사, 법장 스님 치사, 축사 기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우리가 간직

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단순히 불교적,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민족 대단결의 의미가 담긴 동판 불사가 원만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 행회를 통해 팔만대장경을 동판으로 복원해 영구 보존하는 범국민운동이 본격화됐다”고 발표했다. 배지선 기자

지율 스님 2천마리 도롱뇽과 함께

‘초록 공명과...’에서 수·종이 작품, 사진 전시



전국 도롱뇽 친구들이 수놓아 보내온 ‘2천마리 도롱뇽의 합성’.

100일간의 생명을 건 단식기간 동안 지율 스님의 뜻을 지지하며 전국의 도롱뇽 친구들이 수놓아 보내온 2천 마리의 도롱뇽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9월 6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민주공원 기획전시실에서 ‘초록의 공명과 도롱뇽의 합성’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전시회에서 도롱뇽을 만나볼 수 있다.

민주공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생명운동의 정점에 있는 천성산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함께’라는 주제로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

고 준비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 뼘 한 뼘 손으로 수놓은 ‘도롱뇽의 합성(2000천 마리 도롱뇽 수작)’과 종이로 접은 도롱뇽 200,000만 마리가 바닥에 전시돼 장관을 이루며 천성산의 사계와 생태계 사진 150점, ‘초록의 공명’ 영상물도 상영한다. 특히 직접 도롱뇽을 수놓고 종이로 접는 행사가 마련되며 신문기사·편지 모음, ‘초록공명’ CD 판매 등을 통해 그동안 천성산 운동의 개요를 살피고 뜻을 모으는 시간도 갖는다.

지율 스님은 “천성산의 이야기는 개발로 신음하는 이 땅의 상징적인 이야기”라며 “도롱뇽을 수놓고, 도롱뇽을 접으며 천여 통의 편지를 함께 썼던 분들이 가졌던 생명에 대한 의문과 사랑이 더욱 크게 공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462-1016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노고산 흥국사 혜명선원 건립불사 모연문



노고산 흥국사 혜명선원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28년(무진년)에 건립되어 해송 대화상 등 역대 고승대덕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동별당 건물이 노후하여 퇴락함에 증진할 시절인연이 돌아옴이라!

대한불교조계종 법전 중증예하께서 명명(命名)하여 주신 혜명선원(慧命禪院)으로 다시 건립하여 눈푸른 납자들이 수행 정진하는 수도권의 참선도량으로 거듭나고자 발원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무무 동참하시어 한량없는 공덕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천년고찰 역사도량 흥국사 주지 대오 합장

혜명선원 불사내역 및 복전금

대들보 10,000,000원	기둥 8,000,000원
도리 5,000,000원	추녀·사래 8,000,000원
창방 4,000,000원	장허 2,000,000원
주춧돌 1,000,000원	한식청호 500,000원
서기래 300,000원	부연 100,000원

- 동참자 명단은 불사 내역별로 상량문에 올려 영구히 보존합니다.
- 백만원 이상 동참하신 분은 만년위패를 모셔드립니다.
- 50만원 이상 동참하신 분은 9월 4일(음 8월 1일)부터 500일동안 매일 사시에 축원하여 드립니다.

혜명선원 건립불사 500일 기도안내

입재 : 2005년 9월 4일 일요일 (음 8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향 : 2007년 1월 19일 금요일 (음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계좌 및 문의 접수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4-01-0591-948 (예금주 흥국사)

전화 : 흥국사 쉼투소 02)381-7970